

보 도 해 명 자 료

('18. 4. 25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조윤선의 여가부 '덧글부대', 산업부·특허청서도
활동 (18.4.25, 경향신문)

1. 기사내용

- ☐ 조윤선 장관 시절 여가부에 '덧글부대' 용역을 제공한 회사 책임자들이 문체부·산업부·특허청에도 SNS 여론을 조작하는 동일한 홍보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남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☐ 산업부는 기사에서 언급된 업체와 홍보용역 계약 체결한 바 없고, SNS 여론을 조작하는 홍보용역을 제공받은 바도 없음을 밝혀드립니다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실 서장석 홍보담당관(044-203-4570)
이경수 전문경력관(044-203-4571)